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월간소식지

창조

발행일 2011년 12월 8일 (목)

발행인 성영관 편집 김종성

주 소 (700-821) 대구 중구 동산동 234

전 화 070-4095-6420

홈페이지 <http://creation21.or.kr>

I 이달의 소식

- | | |
|-----------------|----|
| 1. 모임안내 | 1쪽 |
| 2. 대구지부/ 전시관 사역 | 2쪽 |

II 내용

- | | |
|--|-----|
| 1. 노아의 홍수 (52) 잔류지형 - 이재만 | 5쪽 |
| 2. Victor's Bible Journey (31) 출애굽 - 이종현 | 7쪽 |
| 3. 성경적 세계관 세우기 (17) 언약-그 구속의 파노라마1 - 김무현 | 9쪽 |
| 4. 창조기사 번역: 사람과 공룡은 함께 살았다 - 대구지부 역 | 10쪽 |

인사말



벌써 2011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네요.^^ 올해를 돌아볼 때 저에게는 어린 이들을 위한 창조과학 실험카페와 특강들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선포한 참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최근 골절을 입고 두문불출 가만히 누워 있어야 하는 신세가 된 후, 깨닫게 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분주한 저를 이렇게 쉬게 만드시고 주의 임재 가운데 평안히 거하게 해 주셨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임재가운데 그 사랑을 듬뿍 누리시길 기도드립니다.

- 한국창조과학회 대구지부 강사 이 묘 훈 올림 -

1. 2011년 송년의 밤 안내

한국창조과학회에서는 12월 26(월)에 '송년의 밤'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2011년 한 해 동안 창조과학 사역을 인도하여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상호교제를 통해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2011년 송년의 밤

일시: 2011년 12월 26일(월) 오후 7:00~9:00

장소: 양재햇불선교센터 드림홀 (지하 2층)

문의: ☎ 070-4095-6420

● 약도



▶ 대중교통 이용시 :

시내버스 : 140, 470, 471, 641번

지 하 철 : 3호선 양재역 하차(7번 출구 성남, 분당 방면)

2.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 전시관 사역

창조과학스쿨 제2기 기본과정 수강 소감문 - 경산제자교회 홍성택 집사

먼저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을 주시고 이번에 창조과학 스쿨 제2기 기본과정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는 평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 대하여 생각하며 창조과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에 우리교회 목사님 권유로 이번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배울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11월 3일 첫 번째 주에는 개강예배(설교: 최승호 장로)와 더불어 이종현 교수님(경일대학교 토목공학, 아멘교회 장로) 강연을 통해 진화론이 교육과 신학, 교회성장에 미친 영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화론을 배우는 미국 어린이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매년 총기사고로 3,000여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마약과 이기적인 세계관, 무도덕적인 사고로 인해 해가 거듭될수록 범죄가 늘어나고, 심지어 목회자 중에서도 동성애와 진화론을 지지하는 진보기독교연맹이 만들어지는 등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기독교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주에는 신동수 명예교수님(계명대학교 화학공학, 계명대학교교회 장로)께서 “생명, 그 완벽한 디자인”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해 하나님의 물질 창조와 생명 창조, 영혼 창조,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으며, 솔방울과 파인애플, 해바라기 등의 와선, 꽃가루 확대사진 등을 통해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얼마나 아름답고 섬세하게 창조하셨으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창조하신 것과 생명창조는 물질이나 에너지로부터 만들어 질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사역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바다 모래알 보다 많은 우주천체 가운데 오직 지구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셨고, 이 지구에 70억이 넘는 사람들 및 수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으나 그 많은 생명체 가운데 영혼을 가진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창조하셨는지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범죄한 사람들을 모두 멸하시고 없애버려도 하나님의 영광에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려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죄 값을 갚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종일 원장님(김종일 제통의원, 제일교회 집사)의 “신묘막측한 인체”라는 제목의 강의를 통해서 경추와 흉추를 C-라인과 S-라인으로 각각 설계하셔서 과도한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하고 무릎 연골의 마찰계수를 거의 제로로 만드신 것과 눈을 3층 구조로 만들어 보호하심, 자율신경, 체온조절, 발바닥의 쿠션 등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셨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건강하게 관리해서 이 땅에 살 동안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여야 함을 배웠습니다.



셋째 주에는 임진규 교수님(경북대학교 동물자원학, 동부교회 집사)의 “세포는 과연 세포 내 공생에 의해 진화되었는가”라는 강의는 전문적 내용이 좀 많아서 이해하기 힘들었으나 진화의 허구성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종성 강사(하양열린교회 집사)의 “한자와 창세기”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면서 한자에 창세기 사건을 남겨놓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으며, 고대 중국의 여러 가지 유적과 유물 등을 통해서 이 민족이 하나님을 믿고 섬겨온 민족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 주제에 대한 내용을 다룬 책을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넷째 주에는 김경찬 교수님(계명대 화학과, 동로교회 장로)께서 “젊은 지구와 우주”라는 제목으로 나눠 주셨는데, 이 부분도 전문지식에 관한 것이어서 이해하기가 쉽진 않았으나 연대측정에 있어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초기조건에 대한 가정들과, 지구 대기내의 헬륨의 양등의 사실만으로도 지구와 우주가 젊은 증거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지구 46억년, 우주 136억년이라는 오랜 연대설적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룡과 사람은 함께 살았을까”라는 제목의 강의를 통해서 성경에도 공룡과 같은 동물이 언급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공룡의 골반구조, 호흡계 등을 통해서 공룡이 조류로 진화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공룡이 함께 살았다는 증거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주에는 권진혁 교수님(영남대 물리학, 경산중앙교회 집사)께서 “창세기 대홍수의 과학적 증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 주셨는데, 다시금 창세기 대홍수 사건의 엄청난 규모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복수 장로님(대구 일심교회)께서 종강예배에서 귀한 말씀을 통해 도전을 던져주셨는데, 주님과 동행하며 창조주이자 구원주 되시는 우리 주님을 널리 전하는데 힘써야 함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봅니다. 또한 김호연 학생(대청초등학교 6학년)의 춤추는 로봇 쇼도 잘 봤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사전 지식이 없는 저에게는 기본과정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쉽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나 기본과정에서는 이미 믿음을 가진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는 것 보다 몇 가지만이라도 하나님의 창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창조의 실례 중심으로 더 쉽고 전도에 유익한 강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



지질학적 증거 - 잔류지형

“물이 점점 감하여 시월 곧 그 달 일 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창 8:5)1

그리고 물은 계속 줄어들어 석 달 후인 10월 1일에는 다른 산들의 봉우리가 드러났다.

- 현대인의 성경

진화론적 동일과정설에 기초하여 해석하려는 지질학자들은 현재 보여주고 있는 지형들을 “변하고 있는 진화과정의 순간”이라고 본다. 즉 이들은 일정한 침식의 “시간” 가운데 한 순간으로 보는 것이다. 반면에 격변적인 해석을 하는 지질학자들은 현재의 지형들이 변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어떠한 격변을 겪은 후에 남겨진 흔적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동일과정설적인 지질학자들은 지형형성을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시간에 의존하는(time-dependent) 해석을 내리려 하고, 격변론자들은 시간과 독립적인(time-independent) 사건(episode)에 중요성을 부여하려고 한다.

지형학의 용어 가운데 “잔류지형(Relict landform)”이라는 것이 있다. 일단 지질학자들이 세워놓은 정의를 먼저 보고 나누어보자. 커튼(C. A. Cotton, 1968)은 “오늘날 진행되지 않는 침식과정에 의해 형성된 지형”이라고 정의 했다. 가너(H. F. Garner, 1974)는 “지금과는 다른 특별한 기후환경에서 물리, 화학,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지형이다.” 라고 정의 했다. 쉽게 말하자면 잔류지형은 오늘날의 자연적인 과정으로는 결코 해석될 수 없는 지형이며, 일전에 지금의 환경과 다른 상황을 경험한 흔적을 의미한다. 잔류지형의 예들을 접하게 되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모든 강의 너비와 깊이는 오늘날 물의 양보다 훨씬 깊고 넓다. 이는 오늘날의 물의 침식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다. 분명한 것은 지금의 강은 언젠가 엄청난 양의 물이나 흙들에 의해 깎인 경험을 이야기한다. 또한 미서부의 모하비사막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사막은 잘 짜여진 하계망(river system)을 보여준다. 그러나 자명한 사실은 오늘날의 강우로는 절대 형성 불가능한 모습이며 언젠가 많은 물이 흘렀던 적이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해안은 해안절벽을 이룬다. 이는 과거에 해수면이 한 때 육지보다 훨씬 높았었음을 가리키며 지금과 달리 아주 빠르게 육지가 상승했던 적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멕시코의 파자 캘리포니아, 뉴질랜드의 와이루 계곡에서 잘 발달된 해안절벽을 관찰할 수가 있다.

다른 예로 빙하지형은 가장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잔류지형(殘留地形)으로 꼽힌다. 빙하지형은 특별한 모양을 보여주는데 뾰족한 산꼭대기, 둥그렇게 파인 씨크(cirque-참조: 산악빙하의 침식작용을 받아 산허리가 우묵하게 파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 안락의자 모양으로 생긴 요지. 곡빙하나 소규모 빙하의 곡두부에 주로 형성. 요지의 바닥은 산쪽으로 기울어져 작은 호수를 형성하기도 한다. 산정은 뾰족하게 급경사를 보인다. 권곡(圈谷), 카르(Kar)는 동의어.), U자 계곡 등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특유한 지형을 보이기 때문에 이전에 언젠가 빙하지역이 현재의 극지방에만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의 거의 대부분, 북아메리카의 일부, 북유럽의 대부분, 뉴질랜드의 전 지역, 아프리카의 많은 부분까지 덮였었다고 믿는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다량의 빙하가 녹으면서 형성된 모습들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날에 빙하가 녹더라도 이러한 대규모의 빙하지형을 만들 수 없다는데 그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빙하지형으로 해석되는 지형도 역시 대표적인 잔류지형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함천 배티세일동굴

- 은방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는 동굴



사진제공: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전문용어라서 생략하지만 그밖에 카르스트(Karst)지형, 보옥사이트(bauxite) 토양, 에르그(erg-참조: 식생이 거의 없으면서 바람에 휩쓸려온 모래로 덮여있는 넓고 평편한 사막 지역), 건조 호수층 등 잔류지형에 대하여 쓰자면 끝이 없다. 사실 지구상의 모든 지형을 잔류지형으로 취급될 수 있다. 부델과 가너를 포함한 많은 지질학자들은 “**지구상의 대부분이 잔류지형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렇다면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구에 이들 모습을 만들었던 전 지구적인 대한 침식활동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고 여긴다면 간단한 것 아닌가? 노아홍수 후기 물이 빠져나갈 때와 또는 노아홍수 안정화되는 일지에서 그 대답을 준다.

출애굽 (The Exodus - Exodus 12:51~13:16)

모세가 히브리 노예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그는 파라오의 딸에게 입양되어 이집트 왕자로 자라났다. 그러나 그는 히브리 노예를 때리던 이집트인 공사감독을 죽였기 때문에 도망가야 했다.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목동으로 일한 후에, 하나님은 불타는 덩불 사이에서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그분의 백성을 노예로부터 인도해 내기 위하여 이집트로 돌려보내셨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보내셨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집트 전역에 죽음을 가져왔던 주의 천사는 히브리인 장자들은 넘어갔다(passed over). 이것이 첫 번째 유월절(Passover)이었다. 그 이후에, 이집트인들은 자기들의 히브리 노예가 떠난 것에 대해 분노했다.

유대인의 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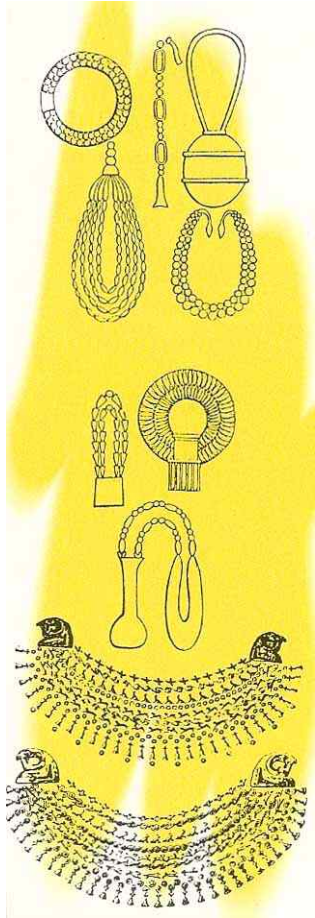
출애굽을 축하하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이 있는 달을 해의 첫 달로 잡았다(출 12:2; 13:4). 가나안 사람들은 이 달을 “아빍월”이라고 하며, 바빌론 사람들은 “니산월”이라고 불렀다. 유대인의 시민 달력은 “티쉬리월”부터 시작한다.

무교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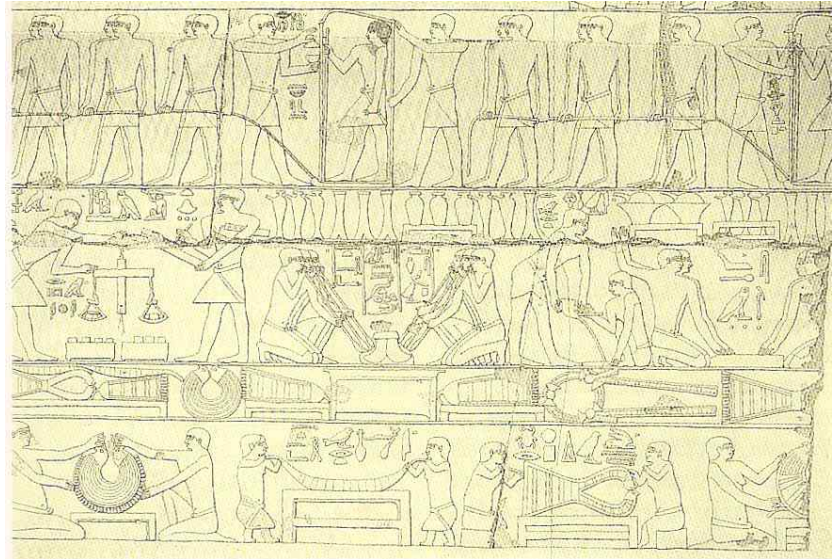
유월절 절기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룩이나 이스트가 들어간 빵을 먹는 것이 금지되었다(출 12:19-20). 이스트가 없으면 그들의 빵이 부풀지 않는다. 그것을 구운 것은 오늘날 식품점에서 보는 빵 덩어리보다 훨씬 더 납작하다. 무교병에는 두 종류가 있었다. 한 종류는 크래커처럼 바삭바삭하고 매우 납작했다. 다른 종류는 대추야자 혹은 호도 빵을 닮아서 두껍고 무거웠다.

THE JEWISH YEAR		
The Jewish calendar was ordered both by the movements of the sun, moon, and stars, and also by the national festivals and the agricultural cycle.		
The year was divided into months marked by the phases of the moon, with an extra month added every few years to adjust as necessary.		
JANUARY	Winter	TEBETH
FEBRUARY		SHEBAT
MARCH	Spring	ADAR
APRIL		NISAN
MAY	Summer	IYYAR
JUNE		SIVAN
JULY	Summer	TAMMUZ
AUGUST		AB
SEPTEMBER	Winter	ELUL
OCTOBER		TISHRI
NOVEMBER	Winter	MARCHESVAN
DECEMBER		KISLEV

<유대력: 유대 달력은 태양, 달, 별들의 이동에 따라서, 그리고 국가의 절기와 농사의 주기에 따라 순서가 정해졌다. 달의 위상에 따라 한 해를 여러 개의 달들로 나누었으며, 수년에 한 번씩 조정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달을 더했다.>



<이집트 여인들이 히브리인들에게 주었던 보석의 일부는 아래의 이집트 모직물에 들어있는 그림과 같았을 것이다.>



<이집트인의 모직물에 나타난 보석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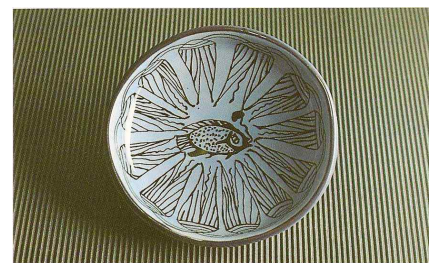
무교절

원래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날부터 지켰으며 7일 동안 계속되었다. 무교병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을 서둘러 떠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반죽에 누룩을 첨가하면 빵을 굽기 전에 반죽이 부푸는데 여러 시간이 걸린다. 출애굽하기 전날 밤 히브리인들은 반죽이 부풀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음 날 무교병을 가지고 떠나라고 명령하셨다.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무교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집트 탈출과 노예로부터의 자유를 기념했다. 시간이 흐르자, 유월절과 무교절은 점차 하나의 절기로 결합되어서, 7일 혹은 8일 동안 계속되었다. 오늘날 유월절은 “세더/seder”라고 부르며, 무교절은 “마쭌스/matzos”라고 부른다.

노예 - 이집트의 손실, 이스라엘의 이득

하룻밤 새에 이집트인들은 자기들을 섬기던 약 600,000명의 남자와 약 수백만의 여자 및 아이들을 잃었다(출 12:37). 이 사람들은 모두 노예였으며, 이집트의 기능인들이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도 건설, 벽돌 만들기, 직조, 농사, 음악, 금속 공예, 가죽 만들기, 유리공예 등을 배웠을 것이다. **창조**



<이집트 전통 장신구의 현대판>

언약: 그 구속의 파노라마 1

I. 서언 (창조-타락으로부터 아브라함 언약까지)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하면 “창조 → 타락 → 구속 →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창조 → 인간의 불순종에 의한 죄와 사망의 시작과 피조 세계의 타락 →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 예수그리스도 재림후의 최후의 심판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로의 완전한 회복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요한계시록 21:5)

성경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신 후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원래의 피조 세계보다도 훨씬 더 완벽한 상태로, 다시는 죽음과 고통과 슬픔이 없도록 새롭게 재창조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의 창조와 타락을 단순히 누군가가 지어낸 설화라고 생각한다면 예수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이 의미 없는 일이 되어 버리며, 타락 이전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창조가 지어낸 얘기라면 예수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누릴 완전한 회복도 신뢰할 수 없지 않을까요? 앞의 두 장에서는 성경의 예언과 성취를 살펴보면서 성경이 성령님 즉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무오한 책이며, 또한, 그를 통하여 세상 역사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언약들을 베푸시고, 그것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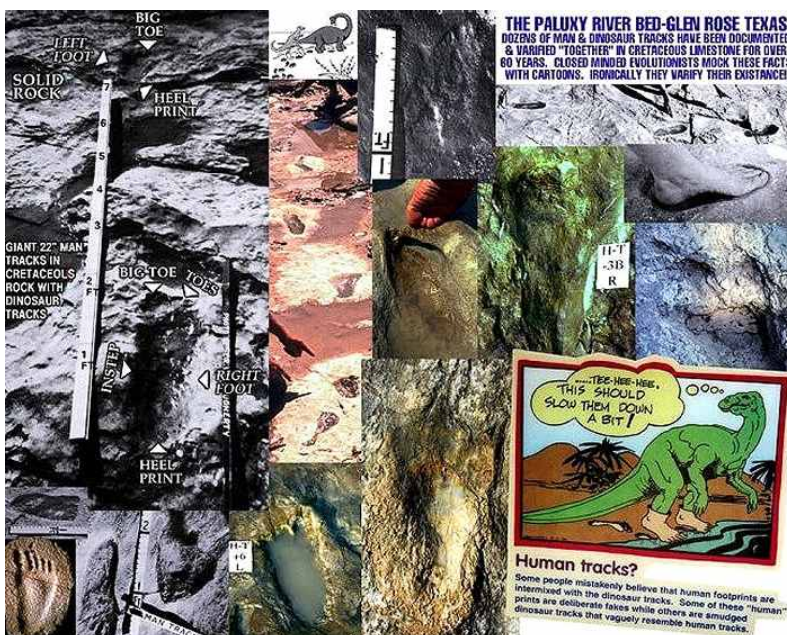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속을 베푸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시편 111:9)

He has sent redemption to His people; He has ordained His covenant forever; Holy and awesome is His name. - Psalms 111:9, NASB

출처 : "성경적 세계관 세우기" 중에서 **창조**

사람(일부는 거인)과 공룡이 함께 살았다는 실증적 증거

("Emperical Evidence" That MAN (Some Very Big) And DINOSAURS LIVED TOGETHER!)



공룡 발자국들과 함께 나있는 이러한 사람의 발자국들은 공상적인 진화론적 믿음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진화론을 신봉하는 자들에 의하면, 그 석회암은 중생대 백악기에 해당되는 1억4천만년에서 6천5백만 년 전 것으로 주장되며, 공룡은 사람이 진화하기 이전인 적어도 6천5백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믿고 있다. 이 발자국들에 대한 그들의 '전문가적 설명'에 의하면 공룡들이 가끔 사람의 장화를 신었을 수 밖에 없다.

이 발자국들은 창조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성경의 역사적 정확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4,300 여 년 전에 전 지구적인 대홍수가 있었고, 거인이 살았었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아래의 표 1은 두 개의 다른 고고학적 연구 자료들로부터 얻어진 화석발자국들에 대한 사람의 특징들을 현대인의 발자국 특징들과 함께 요약해 놓았다. 이 연구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발자국에는 차이가 없다. 50여 개의 사람의 것과 유사한 발자국(Ichnites) 모두는 McFall에 있는 창조증거박물관에 의해 보고되었다. 우리 팀은 오랜 연대설적으로 백악기 지층에 나있는 단지 8개에 대해서만 조사하였다.

TABLE 1.. COMPARISON OF THE ASPECT CHARACTERISTICS OF FOSSIL HUMAN-LIKE ICHNITES WITH THOSE OF THE MODERN HUMAN FOOT.

Aspect Ratio Characteristics	Aspect ratio averages/(range)	
	Modern(a)	Ichnites(b)
R-1(c)	2.5(2.19-2.84)	2.6(2.3-2.8)
R-2(c)	1.47(1.35-1.86)	1.45(1.2-1.58)
R-3(c)	2.0	2.0
Toe taper angle	38-42 degrees	38-42 degrees
(approximate, from tip of great to little toe)		

(a) As measured by a podiatrist for 10 female and 10 male patients. Dr. Louise Robbins sampled 514 subjects(1); both the podiatrist's aspect ratios and our ichnite aspect ratios for R-1,R-2 fall within the minimum/maximum ranges of bare footprint measurements made by Dr. Robbins. The toe ratio R-3 and the toe taper angle may be innovations developed on this project and add considerable credibility that these were indeed made by humans. Both more literature research and measurements need to be completed to enhance the data base for these aspects and satisfy legitimate criticism, however.

(b) Eight ichnite samples were averaged.

(c) Aspect ratio formulas:

R-1 = Foot length divided by ball width.

R-2 = Ball width divided by heel width.

R-3 = Width of great toe divided by average width of other toes.

결론은 피할 수 없다. 공룡 발자국과 함께 발견되는 방금 찍힌 것 같은 사람 발자국들은 호모 사피엔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발자국들이었다. 새로운 종은 발견되지 않았다. 암석에 새겨진 발가락 끝 부분은 이러한 사람 발자국들이 새겨진 맨 끝부분에서 발견된다. 공룡은 사람의 발가락과 같은 형태를 가지지 않는다. 그것들은 또한 사람의 장화를 신지 않았다. 맨발로 화석 발자국에 당신의 발을 집어 넣어 보면 당신의 발자국과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임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다. 이 표의 자료는 아래의 과학 논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Direct Dating of Cretaceous-Jurassic Fossils' A Creation Research Science-Education Foundation project, CRSEF, Box 292, Columbus OH 43216. Robert Garbe, Hugh Miller, John Whitmore, George Detwiler, Doug Wilber, Frank Vosler, John Ditmars, D. Davis

출처: <http://kacr.or.kr/library/itemview.asp?no=488> **참조**

본 전자소식지를 계속해서 받아 보기 원하시면, 저희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홈페이지(creation21.or.kr)를 방문하셔서 **회원가입(무료)**하시고, 가입하실 때 반드시 **E-mail** 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이메일 주소(creation@creation21.or.kr)로 요청사항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달마다 더욱 좋아지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